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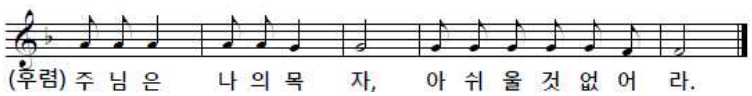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툿찡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1사무 16,1ㄱㄹㅁㅂ.6-7.10-13ㄴ

화답송 | 시편 23(22),1-3ㄱ.3ㄴㄷ-4.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제2독서 | 에페 5,8-14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요한 9,1-41

영성체송 |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성가 | 입당 121 예물준비 248(206)
영성체 169(170) 파견 123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 이시영
- 허갑종 Robert Bellamine

생미사 지향

- Kevin Oh 결혼축하
- 이정자
- 김옥지 아가다, 노희정 데레사
- 이은영
- 허헌근 요셉 축일 축하
- 정도영(마틸다) 영육간의 건강
- 문정재 마가릿따
- 왕사남 자매님들 영육건강

오늘의 말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요한 9,3)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3월 15일	백이백	국민준	장민우	장민우	김종선 이기원 이영혜	여동건 정루하
3월 22일	장혜윤	강호영	민덕미	민덕미	이영혜 이정현 백이백	허우현 이예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	*신청:Sr.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6년 사순특강 & 집중 판공성사(3월 15일)

	시간/장소	담당
사순 특강	11:00-12:30 (산다미아노 홀)	김동권(사무엘) 신부 (뉴튼수도원 원장)
점심(김밥) 12:30PM - 1:00PM		
고해 성사	1:00PM-3:00PM (소성당 고해소)	김찬미(가비노) 신부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미주지사 /서울대교구)
		김영민(미카엘) 신부 (마운틴사이드 메디컬센터 원목)

* **판공성사표**와 **성사표 제출함**이 코리안오피스 데스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순시기 내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에 해당됩니다. 성사 보신 분들은 **성사표 제출**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영성특강 일정

3/15(주일) 특강	Fr. 김동권 사무엘 (뉴튼 수도원 원장)
5/17(주일) 특강	Fr. 이용호 프란치스코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공동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동안 매 주일 08시 50분부터 대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이 봉헌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2/22(일)	울뜨레아	각 단체마다 봉사자 4명 : 십자가 1 주송1, 초2
3/1(일)	요셉회, 성모회	
3/8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3/15(일)	**청년회**	
3/22(일)	사목회	
3/29(일)	꾸리아	

부활 꽃 봉헌

부활절에 본당에서 사용할 꽃 봉헌하실 분 신청 받습니다.
신청: 646-832-7397 (Sr. 마리루시 또는 재무데스크)

2026년 성주간 전례 안내

3/29	주님 수난 성지주일 (Palm Sunday)	AM. 09:15
4/2	주님 만찬 성 목요일 (Thursday of Holy Week)	PM. 7:00
4/3	주님 수난 성 금요일 (Good Friday of the Lord's Passion)	PM. 7:00
4/4	파스카 성야 (Easter Vigil)	PM. 8:00
4/5	주님 부활 대축일 (Easter)	AM. 09:15

* 4/4(토)-4/6(월)까지 고해성사 없습니다.

2026년 주일학교 신앙캠프

주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4)
일시: 5월 2일~3일 (1박 2일)
장소: Autocamp Catskill
대상: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들과 가족들
참가비: $50 per child, $100 per adult
접수마감: 3월 31일까지
문의: 858-345-0307 (교육분과장 최병은 루치아)

<사순 단식>

1. 걱정을 단식하고, 하느님을 신뢰하세요.
2. 불평을 단식하고, 단순함을 묵상하세요.
3. 스트레스를 단식하고, 기도하세요.
4. 슬픔을 단식하고, 감사로 채우세요.
5. 말을 단식하고, 들을 수 있도록 침묵하세요.

- 프란치스코 교황의 2022 사순단식 권고 중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홍필주 필립보(1774-1801)

홍필주 필립보는 충청도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1790년경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에게 교리를 배워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천주교 신앙을 아주 싫어하였다. 그러나 홍 필립보는 계모 강완숙 골룸바를 모범으로 삼아 신앙을 지켜나갔다.

신해박해 이후 아버지의 반대가 더욱 거세져 홍 필립보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한양에서 그는 복사를 하기도 하고 신자와 결혼도 하였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나 포도청으로 끌려간 홍 필립보는 혹독한 형벌이 계속되자 마음이 차츰 약해졌다. 다행히 어머니 강 골룸바가 그를 보고 "필립보야, 너는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 위에 임하시어 비추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느냐?"하고 권면하였다. 이에 그는 곧장 마음을 돌이켜 박해자들을 향해 '절대로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그 후 굳세게 신앙을 지켜낸 그는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 때가 1801년 10월 4일로,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73, 가해, 2026. 03. 15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OCTO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1: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말씀의 이삭

기도 안에서 너를 만나면

최영아 아네스 | SBS 아나운서

"날 위해 기도해 줄래?" 휴대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친구의 한마디로 길었던 저의 냉담이 끝났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잘 치료하겠다고 했습니다. 흉금을 털어놓는 사이였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속상하고 힘들었던 일, 아이를 키우면서 웃고 울었던 시간들, 앞으로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속닥거렸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넋을 놓고 있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고해성사에서 말을 잇지 못하는 제게 주임 신부님께서는 친구를 위한 기도를 보속으로 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비해 기도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르다 친정어머니가 주셨던 9일 기도서를 발견하고 그날부터 54일 동안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마가목 하얀 꽃이 바람에 살랑거릴 때 여의도 공원을 걸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아이들은 더운지 옷소매를 걷어 올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무리를 앞서가던 아이를 보다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 것 같아. 그 동안 내가 나를 참 많이 힘들게 했는데 모든 게 달라졌어. 하느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음 좋겠다."

친구는 하느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기도로 고통을 견디고 의연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약했고, 예수님의 일생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아쉽고 필요할 때만 찾던 이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늬만 신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성서 모임반을 모집한다는 사내 공지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 지금은 마태오 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하는 구절에 생각이 머뭅니다. 기도할 때 막막하고 답답했던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신앙을 나누는 시간이 쌓일수록 어렵기만 했던 기도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낍니다. 출근길 집을 나서며 파란 하늘을 볼 때, 보도블록 사이에 자리 잡은 작고 여린 풀을 볼 때,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 마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고 짧게 기도합니다. 또 마음이 들썩거려 주체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으면, 괜찮다 하시며 고요 속에 머물게 하십니다.

봄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창덕궁 성정각 근처 홍매화도 꽃망울을 터트릴 준비를 모두 마쳤겠네요. 홍매화를 보러 가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못 하게 되었어요. 대신 친구가 남긴 '기도'와 '감사' 두 단어가 씨앗이 되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오늘 밤 기도 안에서 친구를 만나면 이 말을 꼭 하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주님께 이끌어준 덕분에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 고맙고, 사랑해."

그림 해설

주님은 나의 목자 | '아쉬울 것 없다.'는 말, 선언이 아니라 독백인 이 말에는, 얼마나 많은 삶의 질곡과 좌절, 매달림과 거듭남이 배어 있는지요. 딕셔너리(dictionary)의 두께만큼 시간의 켜를 쌓고, 노을처럼 붉게 타던 열정도 잦아든 그 자리에서도, 다시 또 처음은 시작됩니다. 말씀의 방주에 올라 당신께 귀 기울이면, 몰랐던 기쁨이 널려 있는 일상의 골짜기에 가 닿습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04호, 2026년 3월 15일(가해)